

※ 18세기 말엽의 문학과 사회의 흐름, 비평, 비판, ‘감상’

- | |
|--|
| I. 사회비평 잡지와 잡지문학(журналистика)의 등장
II. 전제정에 대한 정치철학적 항거 - 알렉산드르 라디시체프의 여행기
III. 주지주의와 ‘질서’에 대한 저항 - ‘감상(感傷)’을 허하라! |
|--|

I. 사회비판적 잡지와 잡지문학(журналистика)의 등장

>> 니콜라이 И. 노비코프(Н. И. Новиков 1744~1818) - 러시아 최초의 근대적 잡지 발행인. ; 1744년 모스크바 근처 귀족 중간계층에서 태어난 노비코프는 모스크바의 김나지움에서 공부하고 1762년부터는 군대에 복무했다. 이 무렵인 1767년 <신 법령> 제정을 위한 위원회에서 일하며 사회적 불평등, 특히 농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자각하게 되었다. 이후 1767년 군복무를 그만두고 나와 첫 번째 잡지인 『일벌』(Трутенъ; 1769-70)을 간행하며 농노제의 부당함, 지주의 횡포와 수뢰, 사법무시를 신랄하게 고발했다. 노비코프의 이 잡지는 당대의 차르인 예카테리나 여제가 직접 편집과 출판을 담당하던 또 다른 잡지 『온갖 모든 것들』(Всякая всячина)의 “미소를 띤 풍자”라는 인간의 약점에 관대할 것을 주장하던 잡지와 논쟁을 빚었다. 결국 여제의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일벌>은 노비코프 자신이 스스로 더 이상의 간행을 포기하고, 1772년 또 다른 풍자잡지 『화가』(Живописец; 1772-73)을 간행하기 시작했다. 이 잡지 역시 계몽의 반대자를 비난하며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비판, 귀족의 도덕적 해이를 조롱했다.

이후, 노비코프는 『아침의 햇별』(Утренний свет; 1777-80)이란 러시아 최초의 철학전문 잡지를 발행하기도 했다. 이 잡지는 노비코프와 그의 지지세력들에 의해 주로 당대 독일의 철학 논문들을 번역, 게재하며 러시아에 소개했다. 이후 노비코프는 『월간 유행 잡지 또는 부인 의상실용 도서관』(1779)라는 러시아 최초의 여성전문잡지를 간행하기도 했다. 비공식적 집계이긴 하지만, 일설에 따르면 1765년부터 1789년까지 노비코프가 발행한 출판물은 출판이 시작된 이래 러시아에서 출판되었던 것보다 많은 양의 책이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황제와 정부에 대한 비판적 언론관으로 인해 노비코프는 결국 1792년 네바강 어귀의 섬에 구축된 요새에 수감되게 된다. 수감 중 극도의 육체적 고통을 겪은 그는, 1796년 파벨 1세의 즉위와 함께 풀려나지만 건강을 매우 해쳐 결국 고향 영지를 벗어나지 못한 채 20여년을 고향 영지 농노의 경제적 곤궁과 계몽에 대해 근심하다 사망하게 된다.

>> 러시아 잡지문학의 특징; 비판적 성향이 초기부터 매우 강했으며, 순수 문예잡지(толстый журнал) 뿐 아니라 정치-철학-사상-시론적 성향의 다양한 경향의 글을 싣는 지면으로서 사회여론을 전달하는 연단처럼 잡지가 중용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전반(全般)을 통해 매우 강하게 계승되었는데, 특히 이 시대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글쓰기였던 ‘문학’과 그 지면(紙面)으로서의 잡지는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사회성’을 가장 여실히 담보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1980년대 말기부터 `90년대 초, 소비에트 붕괴를 즈음한 시기에는 정치적, 사회격변기를 맞이한 여론이 바로 이들 잡지를 통해 전달되기도 했다. 이러한 현대로까지의 유구한 역사적 흐름은 18세기 말엽, 사회비판과 계몽을 주장하던 노비코프의 잡지에서 비롯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II. 전제정에 대한 정치, 사상적 항거 - 알렉산드르 라디시체프의 여행기

>> 알렉산드르 H. 라디시체프(A. H. Радишев; 1749-1802) - 러시아 인텔리겐치야의 원형 ; 라디시체프는 1749년 중부 러시아 평원지대의 펜자(Пенза) 시 인근 마을에서 명망있는 지방귀족의 아들로 태어났다. 유년기 동안의 모스크바 생활을 거쳐 13살 무렵인 1762년부터 페테르부르크 황궁에서 시종관으로 지내다가 12명의 러시아정부 장학생의 한 명으로 선발되어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유학(1766-1771)을 하게 되었다. 독일에서 공부하는 동안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여행(Путешествие из Петербурга в Москву)』(1790)을 헌정한 알렉세이 쿠투조프(A.M. Кутузов), 나중 그의 조카딸과 결혼하게 되는 마트베이 루바노프스키(M.K. Лубоноковский) 등의 친구를 사귀게 되고 동갑내기 괴테(J.W. Goethe)와도 함께 수학했다. 이때 18세기 당대의 계몽주의 프랑스 철학자들과 베이일(Bayle), 마블리(Mably), 레이날(Raynal) 등의 당대 철학자에도 심취하며 전제제도의 비인간적인 면과 부당함에 눈뜨기 시작했다.

이후 수도로 돌아와 공직과 군 생활을 하던 그는, 결혼(1775년; 26세)에 즈음해 고향에 계시는 부모를 방문하기 위해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고향 펜자로 여행을 하게 된다. 바로 이 여행을 통해 푸가초프의 농민반란(1773-74) 직후의 러시아 농촌의 피폐함과 농민 반란의 원인 중 하나인 지주, 귀족계층의 횡포를 직접 접하게 된다. 그러면서 라디시체프는 러시아의 전제주의, 그리고 이를 떠받드는 농노제와 검열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을 논파한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여행』의 집필에 착수한다. 그러나 집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저술과정을 통해 1788년 무렵 책의 대부분이 완성되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1년 뒤인 1790년 출판된 이 책은 라디시체프 자신이 650부를 직접 인쇄, 출판한 것으로 훗날 소비에트 시절의 이른바 ‘자비출판’(самиздат; самиздат)의 시초가 되기도 한다.

검열관의 실수와 태만으로 출판까지 가능하게 된 이 불온서적의 최초의 독자는 아이러니하게도 다음아닌 예카테리나 여제 자신이었다. 전제정에 반대하고 농노제와 검열의 폐지를 주장하는 라디시체프의 사상에서 여제는 프랑스 혁명의 러시아판 재현을 두려워해 그를 시베리아로 유형보낸다. 여제의 사망(1796) 후, 라디시체프는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와 알렉산드르 황제 치세 초기 자유주의적 개혁의 분위기를 누리며 법률개정위원회에서 의욕적으로 일하게 되나 지나간 시대와는 또 다른 사회적 분위기에 이내 좌절하게 된다. 자신의 책에서 소개한 것처럼 케사르에 대한 카토(Cato)가 ‘이제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다’고 말하고 자살했듯이, 라디시체프 역시 1802년 자신의 삶의 영원한 주인이 되고자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 근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본격적 러시아 기행문학. 그러나, 작품의 중심 주제가 된 ‘여행의 의미’는 다른 여타의 문학작품, 특히 18세기 중후반 유럽의 귀족들의 세상에 대한 견문을 넓히며 여행을 통한 자아의 추구하고 도약을 위한 소위 ‘그랑 투르(grand Tour)’의 기록과는 사뭇 다르다. 먼저, 라디시체프가 여행기는 국외가 아니라 러시아 제국의 두 수도간 여행의 기록이다. 그리고, 라디시체프는 본질적으로 전통적인 러시아 땅과 자연에 대한 예찬이나 상념이 아니라, 그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라디시체프는 여행 본연의 제재인 ‘낮선 풍광과 자연을 접하는 관찰자의 신비로운 영탄이나 여행이라는 기회를 통해 일상의 시공간을 벗어난 여행자 내면의 자아성찰’ 등에서 벗어난다. 라디시체프는 당시 러시아 제국의 가장 개명한 공간이었던 과거의 수도와 현재의 수도 두 도시를 여행하며, 그러나 수도 바깥의 농촌에서는(저 멀리 시베리아나 중부 러시아 깊숙한 평원, 북부

러시아의 해안가 마을도 아닌, 두 수도 사이의 농촌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수도의 계몽한 지식인과 황제, 귀족, 고관들은 차마 상상도 하지 못할 지주들의 폭정, 전횡, 무지와 야만 등이 판치는 그 실상을 괴롭고 참담한 심정으로 읊어내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에서 라디시체프의 여행기는 동시대 유럽의 여행기와는 자못 대조적인, 무척 '인식론'적이며 계몽적인 여행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f). 낭만주의 기행 - 스스로를 도피, 격리.

다른 한편으로, 문학 작품으로서 라디시체프의 여행기는 조금은 느슨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작품 전반에선 작품의 큰 세 가지 테마인, 농노제 폐지, 검열제 폐지, 그리고 전제정의 개혁에 대한 작가의 강조가 조금은 두서없이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명백히 작가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1인칭 화자의 영탄과 감상, 애수 등이 종종 묻어나고 있다. 게다가, 문학 자체의 의미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러시아 문학 전통답게 이 기행문학은 18세기 러시아 문학에서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라디시체프의 문장은 길고도 고통스럽다. 전형적인 신고전주의적인 만연체와 장중한 문체를 구사하는 그의 문장은 그래서 현대 러시아어로도 매우 복잡한 통사론적 구조를 안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그의 무거운 언어는 그만의 독특한 속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18세기 신고전주의 시대, 송시와 드라마가 시대의 장르였던 그 시기, 라디시체프의 기행문은 장중한 산문의 범례를 보이고 있다.

앞서 소개한 노비코프와 마찬가지로 라디시체프 역시 진정 계몽된 귀족의 '무거운 책무'를 다하고 있다. 그는 일신의 영달에 만족하지 않고 러시아 제국의 95%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그들의 권리 보장, 비판과 토론, 상식과 양심이 허용되는 '건강한' 사회, 그리고 강한 군주의 자의에 의해 제국이 좌우지되는 것을 막고자 자신의 정치적 pamphlet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간행하였다. 이런 행동하는 윤리적 지식인으로서 라디시체프는 이후, 19세기 러시아 사회의 이른바 '인텔리겐치야(интеллигенция)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주지주의와 '질서'에 대한 저항 - '감상(感傷)'을 허하라!

>> 니콜라이 M. 카람진(Н. М. Карамзин; 1766-1826) - 18세기 말엽, 산문 작가로서 러시아 '문학어(литературный язык)'의 태동을 이끈.

; 퇴역 장군의 아들로 태어나 청소년기 모스크바의 기숙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다.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거쳐 아버지 사후 고향 심비르스크의 영지에 정착하게 된다. 젊어서 교유한 프리메이슨의 영향으로 20대에는 러시아 최초의 아동 잡지인 <아동 도서>의 편집일에도 열정을 쏟는다. 1789년, 유산을 정리해 유럽 여행을 다녀오며 본격적인 서구로의 식견을 더욱 넓혀 나가게 된 카람진은 귀국한 뒤인 1791년 <모스크바 잡지>를 발간, 자신의 문예작품 뿐 아니라 번역 작품, 외국 문학 작품에 대한 본인의 서평 등을 게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때, "가련한 리자" 역시 이 잡지의 지면에 발표되었다(1792). 이후 1802년, 카람진은 러시아 최초의 문학-정치 잡지인 <유럽 통보(Вестник Европы)>를 간행하게 된다. 순수 문예잡지일 뿐 아니라 사회/정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다루던 이 잡지는 19세기에 간행될 수많은 러시아 잡지의 하나의 전범처럼 자리잡게 된다. 사상적, 정치적 견해를 따로 표출할 채널이 없었던 19세기 러시아에서 이러한 사회-문예잡지는 모든 종류의 지적 담론이 생산적으로

오갈 수 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통로였다. 1803년부터 임종 때까지 카람진은 자신을 역사가로도 기억되게 해주는 거대한 저작의 집필에 매달렸다. 『러시아 국가의 역사』(История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1816-26)라고 하는 미완의 12권으로 이루어진 이 역사책은 중세 러시아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각종 연대기를 최대한으로 규합할 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외국의 최신 역사적 문헌과 연구물까지 총망라한, 이른바 19세기 초반 러시아 인문지성이 집약된 경전이나 다름없었다.

시, 역사서, 논문, 번역, 잡지 창간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그가 남긴 단편 작품들은 언어, 문체, 주제 등 당시로서는 서유럽의 여러 작품과 경향에서 모티프를 따오긴 했지만, 러시아 문단에선 획기적이었으며 또한 큰 대중적 성공을 거두었으니, 많은 독서대중들에게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었다. 카람진 역시 귀족 계층으로서 자신의 생활 방식 또한 매우 귀족적이었으나, 문학만은 사회 많은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출구를 열어 러시아 대중의 독서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로모노소프 이후 어느 정도 정착된 상중하 소위 ‘삼문체론’에서 중문체에 해당하는 평이하거나 약간 수준높은 교양어 문체로 자신이 직접 많은 작품을 남겨 더욱 광범위한 독서대중에게 큰 파급력을 미쳤다. 라디시체프만 하더라도 짐짓 교양된 조금은 부자연스런 문체와 현학적이며 고답적인 글과 문장이 많은 것에 비해, 카람진은 평범한 독서력을 갖춘 대중들에게도 쉽게 전파될 수 있는 문체로 문학 수요 계층의 폭을 넓히며 19세기 낭만주의, 이른바 ‘문학 시장(литературный рынок)’의 토대를 닦은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작품 <가련한 리자(Бедная Лиза: 1792)> - 18세기를 횡행한 절대주의의 시대정신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가장 본격적인 러시아 산문으로의 역사적(historic) 작품.

: ‘역사적’인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카람진의 <가련한 리자>가 18세기 러시아 계몽 문학에서, 사사로운 개인의 ‘마음의 상처’를 다룰 수 있는 여지를 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신분이 다른 두 남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란 지극히 감정적인 주제를 다루며, 카람진은 당대 이전까지 시대적, 사회적, 정치적 주제에서 한발 물러나, 슬퍼하고 기뻐하고 화내고 즐거워하는 ‘인간의 마음과 심리’를 작품의 주제로 삼았다.

= 그러나, 이런 접근 또한 러시아 고유의 현상은 아니었으니 프랑스의 루소와 독일의 전기 낭만주의 문학에서의 작품과 경향에서 영향 받은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 서구의 영향을 결코 부정하지 않으며 충실히 러시아적 변안물을 만들어내며 러시아 문학의 저변을 서서히 넓혀나간 것이다.

= 동시에, 이런 ‘감정’을 다룰 수 있게 된 것은 18세기 한 세기 동안 이성과 질서, 조화와 계몽 등을 중시하던 주지주의와 절대주의 정치의 팍 짜인 틀에서 벗어나려는 ‘일탈’의 움직임이 강하게 개재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곧, 이성의 타격이 아닌 감정의 상처, 즉 ‘감상을 허하라’는 모토[감상주의(感傷主義)]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는 또한 19세기 접어들며 등장하게 될 낭만주의라는 서정적 자아의 독백과 토로를 담아내는 문예사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진입로를 닦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